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공동발의자 추세]

[미국 경제]

- WSJ: 파월 의장, “올해 금리 인하 여지 있다”
- Bloomberg: (칼럼) ‘연준이 판단하는 저금리 폭은 틀린다’
- Bloomberg: 2월 미 무역적자 벌어졌다... 1년 새 거의 가장 커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월 이후 가장 커
- WSJ: 지난 수년간 식품가격 상승후 소비자들 대응 안간힘

[금융]

- Bloomberg: 유럽은행은 연준의 영향을 받는다
- CNBC: 금값 2천3백불로 최고치... 연준 궁극적인 금리 인하 기대

[뉴욕]

- WSJ: 6월 시행 예정인 맨해튼 혼잡통행세, 소송으로 늦어질 듯

[물류]

- WSJ: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물류 우회’ 대규모 손실
- Bloomberg: 픽업 트럭 판매 추락으로 디트로이트 자동차사들 수익 타격

[원유]

- CNBC: 미 원유, 85달러에서 주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환불 사기로 아마존 판매자들 고통받아
- Bloomberg: Apple, 전기차 포기하고 가정용 로봇 개발에 집중
- CNBC: Levi's, 백화점 쇠퇴에 따라 온라인으로 매출 구조 변경
- FinancialYahoo: 포드, 신형 전기차 SUV 양산 연기 ...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탓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공동발의자 추세]

[현황] 이 법안은 113차 의회회기 때인 2013년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가 된후 매 회기 마다 새로 발의가 됐으나 표결 법안으로 상정되지 않고 계속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

의회 해당 법안 상황: [여기를 눌러주세요.](#)

[핵심 내용] 상원과 하원에서 이른바 'Partner with Korea Act'라는 법안으로 발의되어 연간 1만5천개의 E4 비자를 한국에 발급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 2년마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비자.

[추세]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상정 가능성이 높으려면 발의자뿐만 아니라 공동 발의자가 많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법안은 발의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이래 공

동 발의자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태다. (발의자는 일반적으로 한명임)

[향후 전망] 공화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덜 수용적인데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법안 상정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임.

1. 주미 한국대사관: 법안 진행 여부는 법사위 영향력이 중요한 만큼 대사관이 법사위원들을 타깃으로 활동중임.

2. KOCHAM:

1) 회원사 투자 지역 등 63개 상하원 의원들에 스폰서 및 지지 요청 회장 명의 서한을 작년 11월 발송.

2)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를 비롯해 한인 단체인 뉴욕경제인협회 등과 공동협력

3)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 활용 예정

[미국 경제]

WSJ: Powell Still Sees Room for the Fed to Cut Rates This Year

파월 의장, “올해 금리 인하 여지 있다”

- 파월 의장은 어제 수요일에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둔화로 올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연준의 기대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 같은 이유로 최근 수년 동안 노동시장이 긴축적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시사했다. 즉, 임금과 물가가 같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상승 둔화세가 경제가 너무 ‘뜨겁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The Fed Is Wrong About How Low Interest Rates Will Go

(칼럼) ‘연준이 판단하는 저금리 폭은 틀린다’

- 금융 시장과 연준은 자산 가격에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이슈인 금리 인하 폭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입장이 맞다고 본다.
- 물론 시장과 연준은 올해의 경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시장의 선물 가격은 0.75% 금리 인하의 연준 관리들의 중간 추정치와 동일하다.
- 그러나 향후 수년간의 예측은 차이가 난다. 선물 시장은 2027년에 단기금리가 3.7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멤버들의 중간 예측치는 2.6%로 예상해 1백 베이시스 포인트 낮다.
- 이같은 차이 중에 하나는 시장 예측자들은 평균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인 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 둘째로 시장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지도 제한하지도 않은 이른바 중립 금리에 대해 높은 추정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Trade Gap Widens to \$68.9 Billion, Largest in Nearly a Year**2월 미 무역적자 벌어졌다... 1년 새 거의 가장 커**

-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을 초과하면서 2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3개월째 계속 벌어지고 있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2월 상품과 서비스 적자가 2월에 비해 1.9% 늘어난 6백89억달러로 나타났다. 당초 블룸버그의 전문가 대상 예상치인 6백76억 달러보다 컸다.
- 수입은 3천3백20억달러로 커졌는데 주로 모바일 폰, 식품, 자동차 등이다. 반면에 수출은 2천6백30억달러인데 민간 항공기와 원유 등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Tick Up to Highest Since January**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월 이후 가장 커**

- 지난주의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월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일자리 감소 숫자와 비례하는 추세다.
- 3월 30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9천건 늘어난 22만1천건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계속적으로 수당을 받은 총 숫자는 1백79만명으로 줄었다.

Bloomberg 기사

WSJ: How Far \$100 Goes at the Grocery Store After Five Years of Food Inflation**지난 수년간 식품 가격 상승후 소비자들 대응 안간힘**

- 수백종류 품목의 식품이 지난 2019년 이래로 50% 이상 상승했다.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하기를 회사의 원료, 운송, 노동 비용의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했다고 말한다.
- 일부 연방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식품회사를 비난한다. 가격을 올리는 수법보다는 상품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수법을 사용한다고.

- 인플레이에 지친 소비자들은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식품 회사들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커피와 마가린 같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다. 소비자들도 세일하는 품목들에 더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

WSJ 기사

[금융]

Bloomberg: Long Shadow of Fed to Fall on ECB After Lagarde's First Cut 유럽은행은 연준의 영향을 받는다

- 유럽중앙은행 관리들은 금리를 곧 인하하는 상황 가운데 향후 정책 경로는 연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정책은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의 금융 상황이나 환율 등에 영향을 주며 인플레이, 무역 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책의 여파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 연준 관리들은 다음 주에 회의를 개최해 언제 얼마만큼 금리를 낮출지 논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을 예의 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트레이더들은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금리 인하를 4차례, 반면에 파월 의장이 어제 수요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연준은 2차례 또는 3차례 할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Gold powers to new high above \$2,300/oz on rate cut optimism 금값 2천3백불로 최고치... 연준 궁극적인 금리 인하 기대

- 금값이 온스당 2천3백불을 돌파했다. 금은 2천3백4달러를 기록한 후 0.4% 하락한 2천2백9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미국 금 선물의 경우 0.2% 하락한 2천3백10달러를 보이고 있다.
- 현재 금에 대한 수요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 중앙은행들이 강한편이다.
- 전문가들은 연준이 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지정학적 위기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분위기 탓이라고 설명했다.

CNBC 기사

[뉴욕]

WSJ: Commuters Wage Last-Ditch Effort Against \$15 Manhattan Congestion Charge

6월 시행 예정인 맨해튼 혼잡통행세, 소송으로 늦어질 듯

-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통금 차량에 15달러를 부과기로 한 시책이 예정된 6월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 이에 반대하는 연방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의 소송은 민주당, 공화당, 비즈니스 소유자, 심지어 공립학교 대표 노조까지 나서고 있는 법적 소송들 중에 하나이다.
- 원고 측은 충분한 환경 평가가 필요한 입장이며 판사가 이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혼잡 통행세 시행은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

WSJ 기사

[물류]

WSJ: Baltimore Bridge Collapse Triggers Extensive, Costly Logistics Diversions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물류 우회' 대규모 손실

- 이번 주 당국은 교량 붕괴 현장의 잔해를 치우는 복잡한 작업을 시작했다. 브리핑에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발표됐다. 항만 당국은 선박 통항로를 언제 다시 개방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 비즈니스 분석 그룹 Dun & Bradstreet는 소비재, 자동차, 석탄 및 기타 화물들을 기준으로 항만 폐쇄가 무역에 미치는 주간 영향이 약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뉴욕-뉴저지에서 사바나에 이르는 항만 당국은 그들이 우회된 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항구도 추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상품 우회에 따른 물류사의 추가 비용은 불가피하다.

WSJ 기사

Bloomberg: Plunging Pickup Truck Sales Threaten Detroit's Profit Engine

픽업 트럭 판매 추락으로 디트로이트 자동차사들 수익 타격

- 올해 첫분기의 픽업 트럭의 판매가 흔들려 스텔란티스 NV, 포드사, GM사의 수익이 타격을 입고 있다.
- 스텔란티스의 Ram 픽업은 1분기에 15% 판매가 감소한 8만9천4백17달러를 기록했다. 포드의 베스트 트럭인 F시리즈 모델로 10% 하락한 15만2천9백43대에 그쳤다.
- 이들 픽업 트럭은 고급스런 옵션과 기능을 갖춘 10만달러 이상으로 회사들이 돈을 벌어난 주력 모델들이다.

Bloomberg 기사

[원유]**CNBC: U.S. crude oil hovers around \$85 as traders take stock of rally
미 원유, 85달러에서 주춤세**

- 목요일 원유 선물은 변동 없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주 유가가 2% 이상 상승하여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2센트 상승한 85.45달러를 기록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변동 없이 89.35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산 원유는 19%, 브렌트유는 16% 상승하면서, 올해 유가는 3개월 연속 상승세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WSJ: Amazon Sellers Plagued by Surge in Scam Returns
환불 사기로 아마존 판매자들 고통받아**

-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Nicole Barton는 환불 사기 사건 이후 자신의 비즈니스를 재구축해야 했다.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사기성 반품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마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컴플레인은 수용되지 않았다.
- 반품 문제는 아마존과 개인 판매자 간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쟁 된 지점이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지속적으로 소송하는 것도 해당 문제와 관련이 있다.
- 한편, 아마존은 소매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해 법률 자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Apple Explores Home Robotics as Potential 'Next Big Thing'
After Car Fizzles
Apple, 전기차 포기하고 가정용 로봇 개발에 집중**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이 자사의 '차세대 먹거리(Next big thing)'로 개인용 로봇 공학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관계자는 애플 엔지니어들이 사용자의 집 주변을 따라다닐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폰 제조업체도 로봇 공학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이동시키는 가정용 탁상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 애플의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제품이 출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선택할지는 불명확하지만, 애플은 로봇 공학을 통해 가정용품에서 발판을 마련, 나아가 인공지능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BC: Nearly half of Levi's sales are happening online and in its shops, a shift as department stores fade

Levi's, 백화점 쇠퇴에 따라 온라인으로 매출 구조 변경

- 수요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리바이스가 자체 웹사이트 및 매장을 통한 수익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오랜 시간 메이시스 및 콜스 같은 도매상에 의존해 왔다.
- 2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소비자 직접 판매는 리바이스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42%에 비해 증가한 것이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높아진 수치이다.
- 이러한 변화는 리바이스에게 이득이나, 향후 리바이스가 도매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CNBC 기사

FinancialYahoo: Ford to delay production of new electric pickup and large SUV as US EV sales growth slows

포드, 신형 전기차 SUV 양산 연기 ...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탓

- 미국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포드 자동차가 신형 전기 픽업트럭과 신형 전기차 SUV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모델 라인업에 가스-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가할 예정이다.
- 목요일 포드는 테네시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 픽업트럭 출시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 인근 온타리오주 오크빌의 공장에서 양산될 예정이었던 대형 전기 SUV 출시는 2027년까지 2년 연기된다.
- 이는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7%로 둔화되면서, 지난해 판매 증가율인 47%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6%였으나 올해 7.1%로 감소했다.

FinancialYahoo 기사

[보고서]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 낮추는 시장...핌코 "점진적 속도 전망"

시장서 "미 최종 금리 수준, 연준 전망보다 높은 3.6% 가능성" 헤지펀드 매니저 아인혼 "연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채권운용사 핼코는 6~12개월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올해 중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핼코 측은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규모가 큰 선진국 경제 다수가 둔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